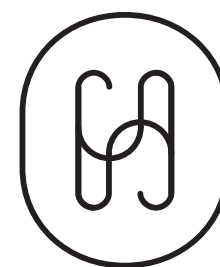


농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만드는 조직



Handspeak

가치있는 사회변화를 만드는 혁신조직의 그라운드



가 함께 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재)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공헌재단으로, AI를 비롯한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혁신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셜 임팩트 생태계를 응원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혁신가와 단체들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2024 IMPACT GROUND

이 임팩트 리포트는 (재)브라이언임팩트의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회혁신 조직이 그리는 임팩트와 미래 비전을 소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발행처 (재)브라이언임팩트

발행일 2025년 12월

이메일 contact@brianimpact.org

홈페이지 www.brianimpact.org

기획 및 제작 ㈜한국사회가치평가

Contents

1 핸드스피크 04

핸드스피크의 시작

핸드스피크가 걸어온 길

미션과 비전

주요 사업

2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한 솔루션 혁신 08

농친화적 공간 ‘Deaf Space (데프스페이스)’ 조성

농인 아티스트 발굴 및 양성: ‘핸드스피크 아카데미’ 시즌2~3

예술수어 어휘 개발 및 교재 제작 등 농예술 기반 조성

농문화 예술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해외까지 저변 확대

3 가능성에서 현실로: 임팩트그라운드 이후 변화의 기록 13

임팩트 프레임워크

임팩트 하이라이트

임팩트 1. Deaf Space (데프스페이스) 조성을 통한 제작역량의 획기적 강화

임팩트 2. ‘농인 아티스트 양성·농예술 콘텐츠 제작’ 모델의 해외 시장 진출

임팩트 3. 농문화예술 창작 생태계 확대

임팩트 4. 캠페인 참여를 통한 시민의 장애인 인식 개선

임팩트 5. 농인·청각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관련 핸드스피크의 역할 확장

4 사회변화를 위한 다음 여정의 시작 25

2024 IMPACT REPORT

1 핸드스피크



농인·청각장애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자립 지원,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진행을 통해 사회 참여와
교육 기회 확대 및 농인·청각장애인의
권리와 행복한 삶을 지원합니다.

핸드스피크의 시작

핸드스피크는 농인·청각장애인의 언어적 장벽을 해소하고,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기업입니다. 수어(手語)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와 기술을 통해 농인·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연결되는 새로운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핸드스피크가
걸어온 길

핸드스피크는 농인·청각장애인이 겪는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문화예술 교육, 자립·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 참여와 권리 보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농인이 주체가 되는 예술 교육을 제공하고, 농인의 예술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

2010-2017

- 'The Stage of the Able' (홍콩) / 'ASIA DEAF DANCE FESTIVAL' (도쿄) 참가

2018

- 핸드스피크(주) 법인 설립

2019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 TED x Seoul 연사(정정운 대표)
- CSR 필름페스티벌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

2022

-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청년의 꿈, 날아오르다 - 청년 연합 수어뮤지컬' 서울
- 제 58회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여자연가상' 후보(박지영 아티스트)
- 예술경영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021

- 제16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대중예술상' 표창 수상
- 브라이언 펠로우 시즌3 선정 (정정운 대표)

2020

2023

- 제3회 한국수어의날 'This is me' 축하공연
- 'Della AWARD 2023'(독일) 축하공연
- '주남아공대사관 국경일'(남아공) 축하공연
- ABU Together for PEACE LIVING WELL WITH SUERDIVERSITY(유네스코xABU) '국제TV부문 대상'

2024

-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모든 날 모든 순간', 'This is me' 공연
- 유튜브 콘텐츠 '월간 핸드스피크' 제작
- 핸드스피크 아카데미 시즌3 (수어문학, 에세이, 웹툰, 현대무용, 연기)
- 'Festival Clin d'Oeil 2024'(프랑스) 축하공연
- 국립극장 '맥베스' 공연



미션과 비전

농인이 자기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미션

농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만드는 조직

비전



농문화 중심

농인의 다양한 가능성을 신뢰하며 농문화에 대한 공감과 존중의 태도로 다가감



농인 주체성 및 주도성

농인 아티스트가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위임



평등한 소통

다름을 존중하는 조직문화와 양질의 통역으로 일상 속 소통·협업 과정에서의 대등한 관계정립

핵심가치



주요 사업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농사회에서는 '장애인/비장애인'의 개념보다 사용하는 언어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농인/청인'의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농인은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이 사용하는 수어는 한국어와 독립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인들은 의사소통이 음성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안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에 불편을 겪고, 한국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문화빈곤으로 이어지고 농인의 일상생활, 교육·사회참여 기회의 불균형을 심화시킵니다.

핸드스피크의 솔루션

핸드스피크는 농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일자리·사회참여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예술분야에서 세 가지 주요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농문화에 적합한 교육 및 사회참여 환경을 구축해 농인 아티스트의 배움과 성장뿐 아니라 농문화예술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인 아티스트 발굴 | 끼와 재능이 있는 농인 청년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여 아티스트를 육성합니다.

농문화예술 콘텐츠 기획·제작 | 수어뮤지컬/연극, 수어노래/랩, 퍼포먼스를 통해 대중들에게 농문화와 수어의 예술성을 전합니다.

농예술 아카데미 운영 | 농인 특성에 맞는 농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예술분야 수어어휘를 개발하는 등 농문화예술 생태계 기반을 마련합니다.



한국수어

우리나라 농인들이 사용하는 보이는 언어로, 한국어와는 문법 체계가 다른 독립된 언어이자 대한민국 농인의 고유한 언어



농인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농문화

농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모든 생활양식

2024 IMPACT REPORT

2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한 솔루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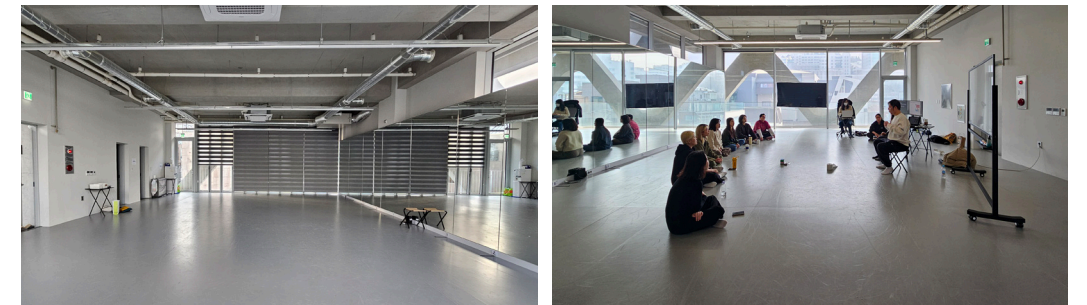
핸드스피크는 농인·청각장애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Deaf Space (데프스페이스)'라는 농(聾) 친화적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핸드스피크 아카데미' 시즌 2와 3을 통해 농인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양성하며, 예술수어 어휘와 교재를 개발해 농예술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나아가 농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며 그 영역을 해외로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농친화적 공간 'Deaf Space (데프스페이스)' 조성

핸드스피크는 2023년 임팩트그라운드 사업 참여를 통해 서울시 마포구에 농친화적 문화공간인 데프스페이스를 조성했습니다. 박자와 울림이 느껴지는 진동바닥, 의사소통의 도구인 디지털 조명, 바깥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통유리 등 공간 곳곳이 농인 당사자와의 논의를 통해 꾸러졌습니다. 데프스페이스는 단순한 연습 공간을 넘어 우리 사회 농친화적인 공간 조성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는 바람이 담긴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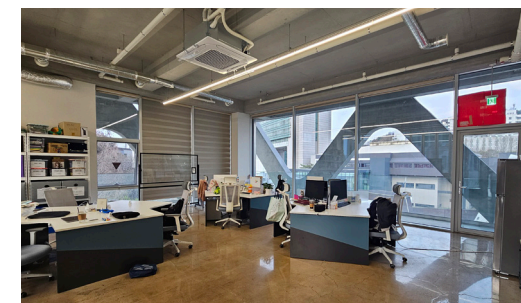
데프스페이스 공간 소개



3층 연습실

[공간 특징]

- 지상층 위치, 통유리 연습실
→ 재난 긴급 상황시 확인 및 소통 용이
- 방음 시설
→ 스피커 출력을 최대한 했을 때 소음 차단 효과
- 기둥이 없는 구조
→ 시각적 제한 없이 전체 조망 가능 및 원활한 소통 가능
- 진동바닥
→ 울림을 통해 박자를 느낄 수 있는 공간
- 디지털 조명
→ 소리 대신 빛을 통한 효과적인 신호 전달



4층 사무실

[공간 특징]

- 원형테이블 등 사무집기
→ 수어 소통에 최적화된 사무 환경 조성

농인 아티스트
발굴 및 양성:
‘핸드스피크
아카데미’ 시즌2~3

핸드스피크 아카데미는 농인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농인 예술 교육이 기성 교육에 수어통역만 갖춘 형식이었다면, 핸드스피크 아카데미는 수강생의 입장에서 접근했습니다. 핸드스피크 아카데미에서는 농인 기획자가 준비 단계부터 참여해, 농인 수강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청인 강사가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수업 전에 농문화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문화적 이해를 높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예술 교육이 청인 강사가 전달하는 내용을 통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는 형태였다면, ‘핸드스피크 아카데미’는 농인 강사가 직접 수업을 진행해 농인 수강생이 자신의 언어로 직접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수강생들이 앞으로 예술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는 긍정적인 수업 후기를 남기는 등 ‘핸드스피크 아카데미’는 농인 아티스트 발굴에도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교육명	일정	참여 인원	커리큘럼
2023 핸드스피크 아카데미 시즌 2	2023. 10. 30. ~ 2023. 12. 4.	농인 청년 34명	• 연기 기초반(강사: 배우 라겸재) • 연기 심화반(강사: 배우 김정현) • 에세이 쓰기(강사: 작가 이슬아) • 현대무용(강사: 안무가 켈마) • 수어문학(강사: 교수 변강석, 전문가 손청) • 스트리트 댄스(강사: 안무가 신나영)
2024 핸드스피크 아카데미 시즌 3	2024. 8. 1. ~ 2024. 12. 20.	농인 청년 38명	• 현대무용 기초/심화반(강사: 안무가 켈마) • 조명연출 이론(강사: 조명감독 윤해인) • 연기(강사: 배우 주창환) • 수어문학(교수 변강석, 전문가 손청) • 디지털드로잉-인스타툰(강사: 작가 숲) • 에세이 쓰기(강사: 작가 양다솔)



예술수어 어휘 개발
및 교재 제작 등
농예술 기반 조성

핸드스피크는 예술 분야 수어 어휘 개발과 농문화 기반의 연기 및 제작 가이드 개발을 통해 농예술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술수어 어휘 개발으로는 실제 예술현장에서 살아있는 언어로 활용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전문 수어 어휘를 수집,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어 교재 제작까지를 추진하며, 농인 예술가의 전문성과 표현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문화 연기&제작 가이드〉는 농인 배우가 청인 중심의 연기 문법을 모방하는 대신, 농인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예술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으로, 농문화 중심의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예술 국제워크숍을 개최해 각 나라의 농인 강사들이 자신의 삶에서 비로워 경험을 어떻게 예술로 풀어냈는지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예술이 단순한 표현을 넘어서 리더십과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참가자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문화 연기 &
제작가이드



2023 농예술
국제워크숍 진행



농문화 예술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해외까지 저변 확대

2022년 백상예술대상에서는 한국 최초로 농인 배우이자 핸드스피크 소속인 박지영 배우가 여자 연기상 후보에 오르며, 농인 배우와 농예술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농인 관점에서 기획되고 표현되는 예술 창작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많은 공연과 드라마에서 농인은 여전히 장애를 극복하는 존재로 그려지는 데 머무르고 있으며, 농인이 주체적으로 서사를 이끄는 창작물의 사례는 드뭅니다. 핸드스피크는 농인 아티스트가 주축이 되어 수어통역, 공연, 유튜브 콘텐츠 업로드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농예술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하는 농예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고 있으며, 해외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및 교류를 통해 한국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024 프랑스 퐁랑더이 페스티벌 참여



2024 IMPACT REPORT

3

가능성에서 현실로:

임팩트그라운드 이후 변화의 기록



핸드스피크는 'Deaf Space (데프스페이스)' 조성을 통해 농인 아티스트의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농예술 콘텐츠 제작과 아티스트 양성 모델을 해외로 확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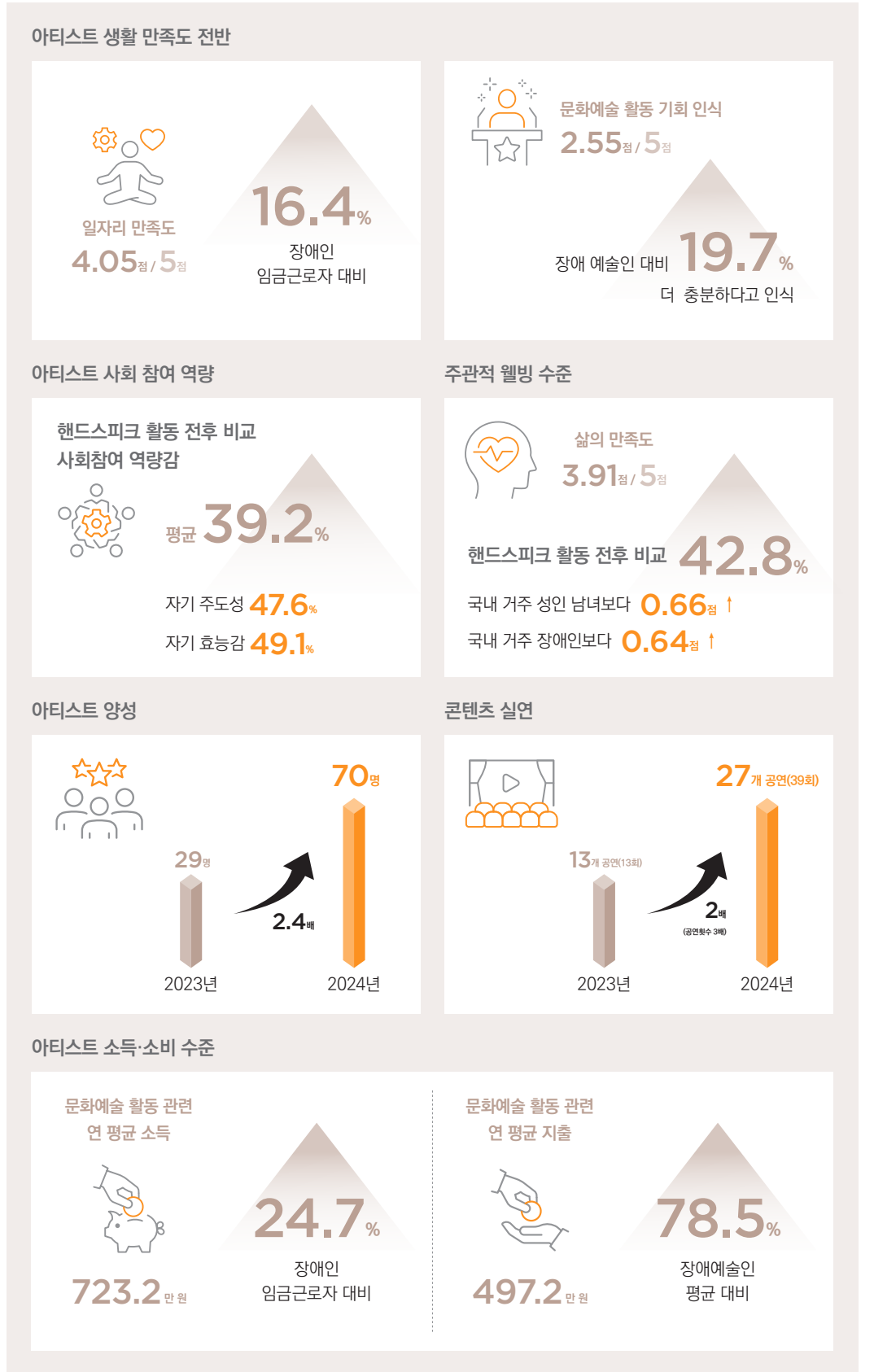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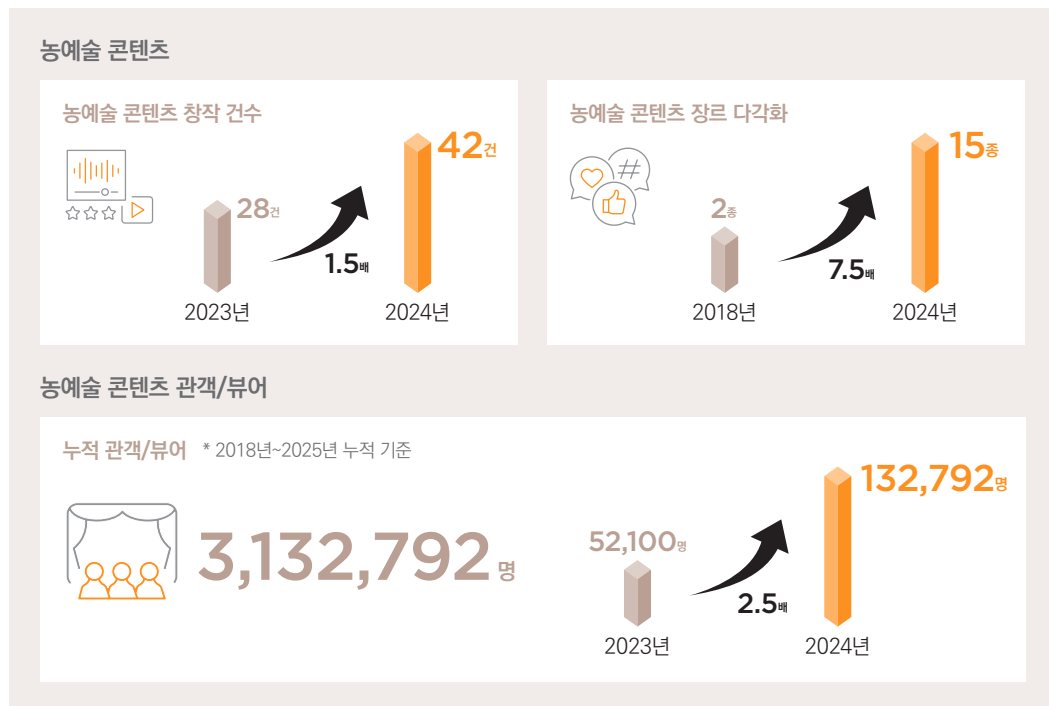
이를 기반으로 농문화예술 창작 생태계를 넓히며, 시민 캠페인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과 농인·청각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프레임워크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을 통한 핸드스피크의 주요 임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팩트 하이라이트



• 핸드스피크 데이터 비교: 정규직, 계약직, 아카데미 및 단기 프로젝트 참여자 전체 평균값(n=22)
 • 소득·소비 수준, 문화예술 활동 기회 인식 비교데이터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1),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 일자리 만족도 비교데이터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3), 202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7차조사)
 • 삶의 만족도 비교데이터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23),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3), 202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 웨이브 7차조사)

임팩트 1. **Deaf Space** **(데프스페이스)** **조성을 통한** **제작역량의 획기적** **강화**

핸드스피크는 2018년 설립 이래 농인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농문화예술 생태계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를 통해 농인 아티스트들은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사회 희망의 확장과 삶의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왔습니다.

농인의 시선으로 만든 공간, 데프스페이스

이제 핸드스피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참여를 통해 농인 아티스트 삶의 질 향상을 넘어 아티스트가 예술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농문화예술이 전문 예술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핸드스피크는 2023년 7월 서울시 마포구 인근에 농문화공간 데프스페이스를 조성했습니다. 데프스페이스는 농인이 중심이 되어 농 친화적 문화예술 교육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청인 중심(Audism)의 환경에서 벗어나, 시각적 접근성과 유기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이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를 넘어, 농인 당사자의 경험과 참여를 바탕으로 발전해가는 살아있는 창작의 터전입니다.

데프스페이스 이용자 **인터뷰**

“데프스페이스에서 바닥을 발로 치면 진동이 모든 곳으로 퍼져요. 이전에 사용하던 곳은 바닥이 돌이라 진동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도 어렵고, 공연을 위해 합을 맞추는 신호들을 주고받기 어려웠어요. 또 이전엔 대부분 지하연습실을 사용해서 외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공간은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생긴 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되고 좋아요.**”

“농인을 위한 공간이 준비된 곳이 없어요. 이 공간이 유일해요. 다른 공간을 가보면 분위기나 전반적인 세팅에서 ‘청인의 것’이라고 느껴져요. 청인의 문화에 맞춰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곳은 나에게 딱 어울리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요.”



그런데 이곳은 나에게 딱 어울리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곳입니다.

Deaf Space 조성을 통한 제작 효율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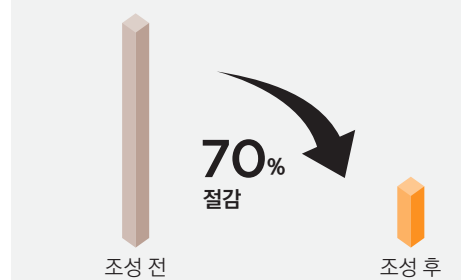
“최대 4배 빨라진 제작 속도, 연습 효율 좋아지고 협업 파트너들의 신뢰 쌓았죠”

데프스페이스 조성 이후 전반적으로 작품 제작 시간이 약 70% 절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뮤직비디오 하나 만드는 데 6개월, 뮤지컬은 1년 정도 소요되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뮤직비디오는 한 달 반, 뮤지컬은 3개월 만에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데프스페이스라는 준비된 공간에서 연습하고, 수정하고, 회의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주요한 요인입니다. 기존에는 별도 회의실을 예약하고 이동해야 했고, 농인들의 연습을 위한 조치들을 준비하는데 번거로운 수고를 들여야 했습니다. 지금은 농인 전용 공간을 통해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 비용도 줄고 작업 속도가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연습 효율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진동 바닥과 서로가 잘 보이는 공간을 통해 박자를 보다 세밀하게 느낄 수 있게 된 것이 주효했습니다. 기존에는 박자를 익히기 위해 여러 번 반복 연습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연습 횟수가 줄어들면서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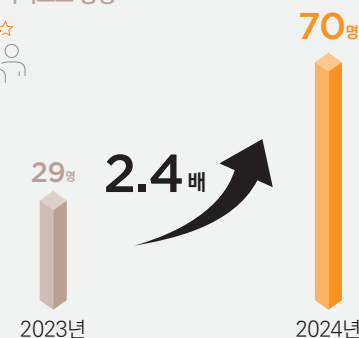
또한 공간의 우수성이 핸드스피크의 콘텐츠와 결합되면서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아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외 디렉터나 외부 기업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전문적인 연습실이 있다는 점이 신뢰를 더해 계약 성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례로 프랑스 페스티벌 디렉터가 방문했을 때 한국에 이렇게 전문적인 데프스페이스를 구축했다는 점에 감탄하였고, 이는 실제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와 같은 공간은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개인이 만든 소규모 공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핸드스피크의 콘텐츠가 이렇게 체계적인 공간을 기반으로 제작된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데프스페이스 조성 전후 작품 제작 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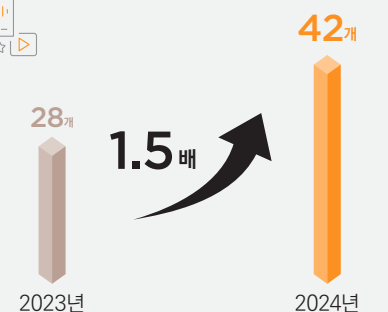


아티스트 양성 수/콘텐츠 수 변화

농인 아티스트 양성



농예술 콘텐츠 창작 건수



임팩트 2.
‘농인 아티스트
양성·농예술 콘텐츠
제작’ 모델의 해외
시장 진출

임팩트그라운드에 참여하며 핸드스피크의 농인 아티스트 양성과 콘텐츠 창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3년 29명이었던 농인 아티스트는 2024년 70명으로 2.4배 증가했으며, 농예술 콘텐츠 창작 건수도 28개에서 42개로 1.5배 증가했습니다. 안정적인 공간이 뒷받침되고 아티스트들의 열정이 더해지자, 핸드스피크가 품고 있던 가능성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핸드스피크는 단순한 성장 단계를 넘어, 국내에서 축적된 농인 아티스트 양성 및 콘텐츠 제작 역량을 글로벌 무대로 스케일 아웃(Scale-out)하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핸드스피크는 오랜 시간에 걸쳐 개척해온 콘텐츠 제작 모델과 아티스트 육성 시스템을 해외로 확장하려 합니다. 그간 축적한 성과가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구현된다는 것은 농인 예술 생태계의 지역적 확장에 있어 큰 의의를 가집니다.

2023 남아프리카공화국
어린이 워크숍 'Funday'



중국 진출 현황
(2025년 6월 기준)

주요 활동	내용	현황 혹은 주요 성과
뮤직비디오 제작	• 중국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불리는 노래를 기반으로 농인 아티스트들을 디렉팅하여 연습 및 촬영할 예정 (사례: 한국에서의 '독도리' 프로젝트)	• 3월 중국 작품 수어번역 완료 • 4-6월 퍼포먼스 창작 • 7월 중국에서 연습 시작 • 10월 현지 촬영 예정
아카데미 설립	• 통유리 연습 공간, 거울이 설치된 연습실, 탈의실, 오피스 공간이 포함된 공간을 확보해 아카데미 설립 예정 • 중국 농인과 청인을 대상으로 콘텐츠 교육 예정	• 7월 중국 농인들을 대상으로 댄스/퍼포먼스 교육 예정
엔터테인먼트 사업	• 중국에서 농인 아티스트들의 왕홍(网红, 인플루언서) 데뷔 지원 • 현재 활동하는 중국 주요 왕홍들과의 협업을 통한 매출 안정성 확보 전략 추진 중	• 4월 중국 농인 아티스트 소개영상 촬영 • 7월 왕홍 데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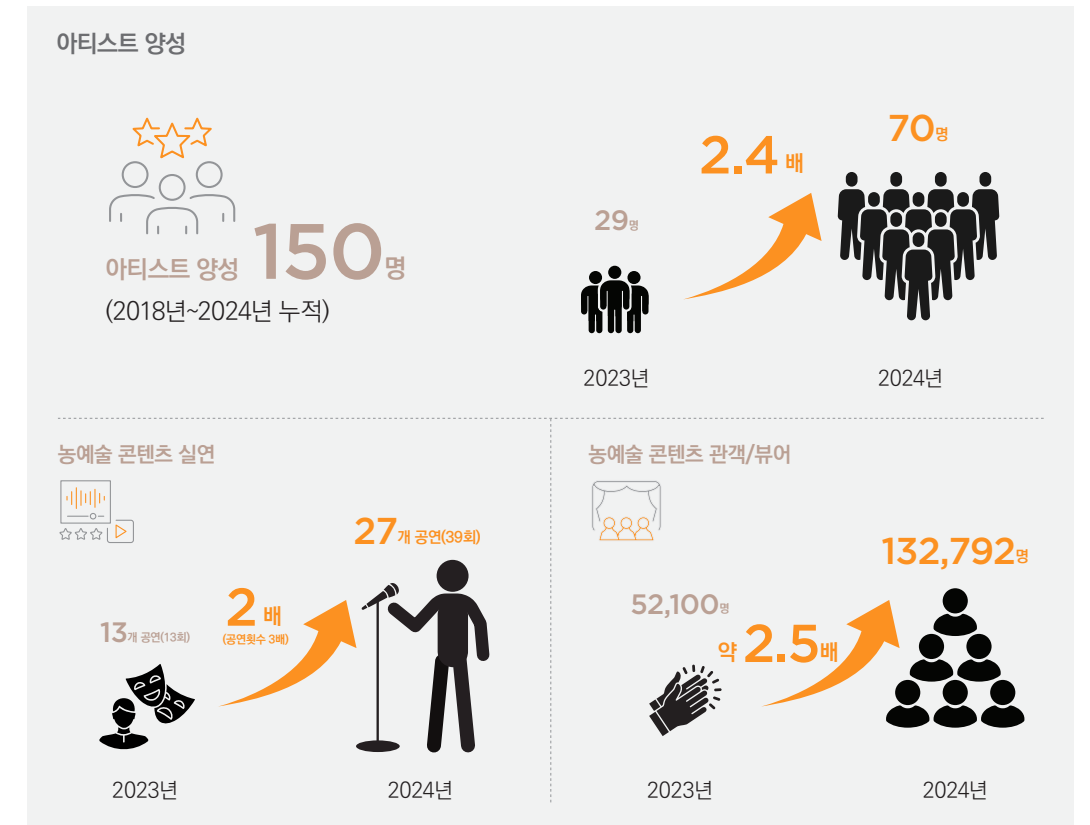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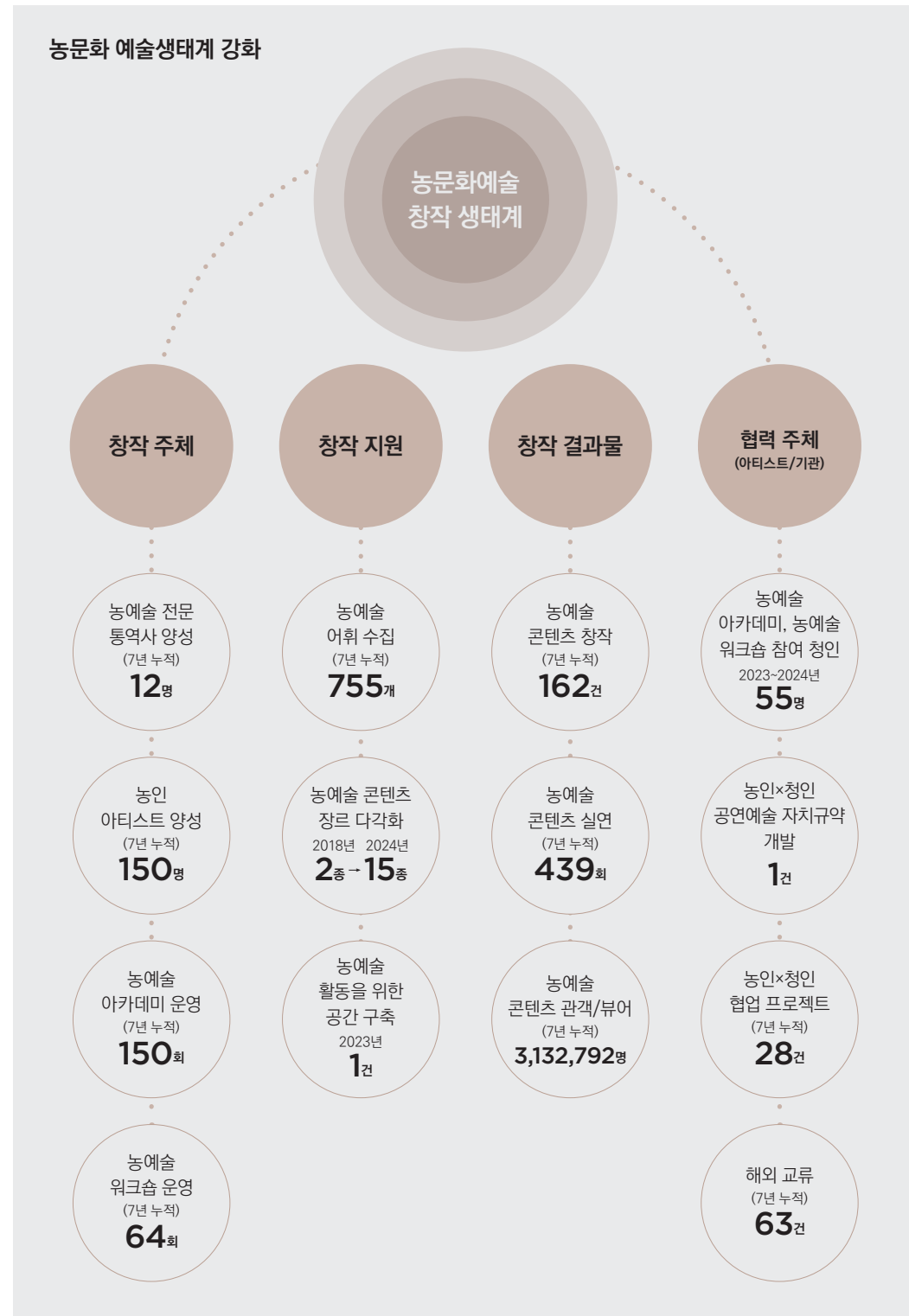
해외 협업 사례

국가	날짜	내용
남아프리카공화국	2023. 9	남아공 수어(SASL) 공용어 인정 축하공연 및 강연
독일	2023. 11.	국제 농인 영화제 델라 영화제(Della AWARD 2023)의 시상식파티 축하
미국	2024. 7.	농예술 국제 워크숍 '핸드스피크X데프웨스트' 개최
프랑스	2024. 7.	농예술축제 'Festival Clin d'Oeil 2024' 공연 참가
중국	2025. 3.~	중국 농인 아티스트 양성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행

이와 같은 스케일 아웃 전략은 단순한 해외 진출을 넘어, 핸드스피크의 사회적 임팩트를 글로벌 확산이 가능한 모델로 증명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핸드스피크의 이번 도약은 농인 아티스트의 창작과 활동 무대의 물리적·문화적 경계를 넓힌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스케일 아웃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임팩트 3. 농문화예술 창작 생태계 확대

핸드스피크는 농문화예술 콘텐츠 기획·제작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농문화예술 생태계의 자본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참여를 통해 핸드스피크가 농문화예술 창작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스피크가 단순한 콘텐츠 제작 기관을 넘어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고 실질적인 공연 기회를 확대하며, 더 많은 관객에게 농예술의 가치를 전달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카데미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150인의 농인 아티스트 양성은 핸드스피크가 농예술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농예술 콘텐츠를 선보이는 공연 횟수의 괄목할 만한 증가는 핸드스피크가 콘텐츠 기획력은 물론, 운영 효율성과 협업 역량까지 겸비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무엇보다 관객과의 접점이 크게 확장됐습니다. 공연 및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핸드스피크의 콘텐츠를 감상한 인원이 2024년 들어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단순한 양적 확장을 넘어 콘텐츠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관객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농예술 아카데미와 워크숍, 데프스페이스 공간 구축 등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의 뒷받침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핸드스피크가 농문화예술 생태계를 더욱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임팩트 4.
캠페인 참여를 통한
시민의 장애인
인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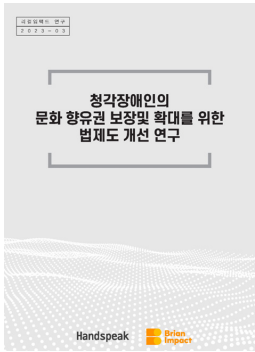

핸드스피크는 공익캠페인에 활발히 참여하며 농예술문화 관련 공익 메시지 전파에도 힘썼습니다. 2024년에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농문화와 수어의 예술성을 전하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9월 23일 세계 수어의 날에는 세계 유명 아티스트들과 힘을 모아 축하 영상을 제작해 SNS에 바이럴 했습니다. 핸드스피크는 캠페인 영상을 통해 더 많은 대중들을 만나며, 농인·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농문화 알리기에 앞장섰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p>2023년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작한 광고에 아티스트 협업 조회수: 286만 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수어의 날 인식 개선 캠페인 참여 • 농인의 말 인식개선 영상 참여 • 청각장애인의 음악 향유를 위한 기술 개발 연구 참여 	 <p>2024년 세계 물의 날 기념 환경부가 제작한 뮤직비디오에 아티스트 참여 조회수: 2,400회</p> <p>세계 수어의 날 기념 핸드스피크 인스타그램을 통한 세계 각국 유명 수어 아티스트의 축하 영상 업로드 조회수: 1만 1천회</p>	 <p>2025년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제작 오디션 프로그램 <Debut's Plan (데뷔스 플랜)> 아이돌 연습생 커뮤니케이션 수업에 수어 퍼포먼스 강사로 핸드스피크 아티스트 참여 조회수: 130.3만회</p>

임팩트 5.
농인·청각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관련
핸드스피크의
역할 확장

핸드스피크의 제도 개선 활동 현황

핸드스피크는 2023년 청각장애인 문화 향유권 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장애인의 문화활동과 관련한 정책의 계획과 심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핸드스피크의 노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현장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할 제도적인 경로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도	활동	내용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이언임팩트 ‘법제정 연구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진행. 청각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관련한 장애인 관련 법률과 문화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현재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을 검토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스피크 김지연 아티스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활동기간: 2024~20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등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에 관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또한 핸드스피크는 농문화를 기반으로 창작한 농문화예술의 내용과 감동이 관객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동극장, 국립극단,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등 예술현장에서의 통역과 자막 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려 왔습니다. 이후 2023~2024년 수어통역 포함 공연이 늘어나 농인·청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 단발성 이벤트에 그쳐 상시적 접근성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핸드스피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개선 활동을 통해 상시 수어통역 배치, 수어통역 좌석제 도입, 정기 해설 운영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힘쓸 것입니다.

문화예술 조직의
정책·서비스 변화

연도	문화예술기관	변화사례
2022	정동극장	연극공연 수어통역 배치
	국립극단	공연연습 수어통역 배치
	세종문화회관	상시 수어통역 배치
	하남문화예술회관	상시 수어통역 배치
	성수아트홀	상시 수어통역 배치
2023	국립극장	상시 수어통역 배치
	전국 4개 미술관 및 전시장	2023 미술주간 일환으로 농인·청각장애인 위한 수어 도슨트 전시 해설 제공
2024	CKL스튜디오 공연	개방형 수어통역 회차 운영
	쇼박스(영화배급사)	'가치봄 영화' 시리즈로 수어통역 포함 영화 상영

2024 IMPACT REPORT

4 사회변화를 위한
다음 여정의 시작



농예술 아티스트 양성부터 농문화예술 창작 생태계 확장까지

임팩트그라운드 참여 이후 핸드스피크는 농문화예술 제작 역량에서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2023년 조성된 농문화예술 창작 공간 'Deaf Space(데프스페이스)'는 농인의 감각과 소통 방식에 맞춘 맞춤형 공간으로, 단순한 작업실을 넘어 창작 역량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허브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공간의 도입은 콘텐츠 제작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협업의 신뢰도 역시 끌어올렸습니다.

핸드스피크는 이제 국내를 넘어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농인 아티스트 대상 뮤직비디오 제작과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 중이며, 콘텐츠 제작 및 아티스트 양성 모델의 해외 이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문화예술이라는 독창적 분야의 세계적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또한 핸드스피크는 농문화예술 생태계의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워크숍, 창작 공간 등 체계적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농인 아티스트, 콘텐츠 수, 해외 교류, 협업 프로젝트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며 농예술 생태계 성장의 성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익 캠페인, 세계 수어의 날 콘텐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에 기여했으며, 정책 연구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문화 접근권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문화예술기관의 수어통역 서비스 도입을 이끄는 등, 농문화예술의 일상적 접근성 향상에도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핸드스피크와 농인 아티스트가 함께 짓는 미래

핸드스피크는 농인의 주체적인 예술 활동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 아티스트 양성과 창작 생태계의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핸드스피크는 농인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감각과 언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작 기회를 마련해왔고, 이를 통해 농인의 문화적 표현이 하나의 고유한 예술 언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핸드스피크는 농인의 정체성과 감각, 삶의 경험이 진정성 있게 반영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인 아티스트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교육과 문화 활동이 농인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 창작, 발표, 협업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통해 예술이 농인에게 자아실현의 수단이자 사회참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핸드스피크는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의 다양한 예술 단체 및 플랫폼과 협업하여 국경과 장르를 넘는 교류를 활발히 이어갈 예정입니다. 농인 아티스트가 국제 무대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어와 시각 중심의 표현이 가진 예술적 가능성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수어 연극, 퍼포먼스, 디지털 아트,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 실험을 통해 농인 예술의 스펙트럼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핸드스피크가 그리는 미래는, 언어와 신체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예술을 창작하고 소비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존중받고 소외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예술은 단지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권리이자 정체성의 확장임을 믿기에, 핸드스피크는 문화예술 단체를 넘어 농인 당사자의 교육, 일자리, 사회참여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앞으로 핸드스피크는 예술을 매개로 농인 당사자의 역량이 사회 전반에서 발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농인의 삶이 보다 풍부하고 존중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도하고 연결하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